

FTA 최근 동향

01 관세청 주요 이슈*

**2015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2015.04.02

지난 4월 2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관세관 등 각 지역 통관전문가를 초청해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1:1상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주요 수출시장의 통관환경 변화와 현지 수출입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수출기업·물류업체 등 약 4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우리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한 수출기업 대응방안'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지원 대책'이 소개되었다.

또한, '중국의 통관제도 대개혁 전망' 및 '인도네시아 보세구역의 이해' 등 우리 관세관 주재국의 통관환경 변화와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연번	설명회 주제	발표자	
1	한-중 FTA 발효대비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제영광	관세청
2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지원 대책	서재용	관세청
3	FTA관련 직접운송원칙(홍콩 경유시)	이민근	홍콩 관세관
4	인니 보세구역 제도	임현철	인니 관세관
5	일본 출장전보고 제도	이근후	일본 관세관
6	러시아 통관제도 유의사항	알렉세이 꼬라쎬프	주한러시아대사관 관세관
7	브라질 통관제도 유의사항	루시아노 실바	브라질 통관 전문가
8	베트남 AEO 제도	손영환	베트남 관세관
9	중국해관 통관 제도 대개혁 전망	윤인채	북경 관세관

* 자료 : 관세청 FTA 포탈

**수출신고서 작성 요령
개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2015.04.01**

최근 한-인도 및 한-아세안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가 타결되어 향후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관세청은 FTA 활용지원 정책 수립 등에 필수적인 수출활용률 산출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발급방식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수출신고서를 개정하였다.

또한 상대국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은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 중 상당수가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인 현지 보세공장으로 반입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FTA 활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중요사항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여부'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로 변경하였으며, 이 항목을 선택조건(C)에서 필수조건(M)으로 변경하여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B' 항목을 추가하여 상대국 보세구역 반입으로 인한 불필요 여부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산지 XX-X-X-Y

작성요령 개정 전	작성요령 개정 후	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여부 표시 - Y : 원산지증명서 발급 - N :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 FTA 발효국 중 자율발급 국가(칠레, EFTA, EU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표시 - Y : 원산지증명서 발급 - N :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 B : 상대국 보세구역 반입으로 불필요 ※ 수출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예정인 경우에도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발급 → 발급 B 추가
C : 선택 기재항목	M : 필수 기재항목	C → M (필수기재)
작성 예 : CN-A-Y	작성 예 : CN-A-Y-Y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추가 표시

자료 : 수출신고서(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작성 지침 안내



**국민과 함께하는
수출입물품 품목분류(HS)
교육 실시**
2015.03.07

중앙관세분석소는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분석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무역관련 전문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 수출입업체 관계자, 세관직원 등 품목분류 업무에 관심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출입물품 품목분류(이하 HS) 교육과정 'HS 베스트 클래스'를 운영하였다.

품목분류의 기본 이론 및 핵심 지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육수진 중앙관세 분석소 분석관(WCO HS 인증 교관), 광재석 관세행정관, 신을기 관세행정관이 강의를 맡아 진행하였다.

한 대학생 참석자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직접 강의하는 수준 높은 교육을 일체의 비용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번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참석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상목 분석소장은 '앞으로도 유능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수출입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등 분석소 정부 3.0 대표과제인 산(産)·관(官)·학(學) 간 교류·협력을 통한 동반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 안내 강화**
2015.03.23

관세청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FTA전략적 활용 촉진을 위해 FTA 미활용기업 모두에게 관세청장 명의의 활용안내 서한을 송부하고, 세관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FTA 미활용 사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이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활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도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협정별, 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제공해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갈 계획이다.



수출신고필증에 상대국 FTA 특혜세율 안내 2015.03.23

관세청은 기존에 한-미, 한-EU 등 주요 협정에 대한 FTA 대상물품 수출 시에만 수출신고필증에 안내문을 게시해왔었던 서비스를 전 협정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4분기부터 모든 협정을 대상으로 매 수출신고 시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현재 발효중인 11개 FTA 협정대상, 49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특혜대상 물품에 대해 F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수출신고필증에 명시한다.

• 예시

이 물품은 수출상대국(미국)에서 일반세율(5%)보다 저(低)세율의 FTA관세율(0~1%)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오니, 수출비용 절감 등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중소기업들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혜택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관세기구 기술위원회 의장 2년 연속 배출 2015.03.30

관세청의 관세평가분류원 김성채 행정관이 2년 연속 HS 검토소위원회 의장에 선임되었다. HS 검토소위원회는 HS 위원회 산하기구로 HS 품목분류표 및 해설서를 현 무역환경에 맞도록 개정 및 발전시키는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기술위원회이다.

이는 김성채 의장이 2014년 처음으로 소위원회 의장에 선임되어 1년의 회기를 성공적으로 이끈 점과 그간 HS 위원회에서 컴퓨터, 영상검용 모니터,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등 신상품 품목분류 논의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의장직 선임으로 국제기구에서 IT제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수출주력상품에 대해 유리한 품목분류 환경을 조성하여 국익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HS 품목분류표 개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한국이 세계 품목분류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2 우리나라 FTA 동향*

산림청 한-중 FTA 대비 '임업통상팀' 신설

2015.01.06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한-중 FTA 등 대외통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임산물 수축강화를 위해 임업통상팀을 신설했다. 신설된 임업통상팀은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확대하고, 수출 보험료와 해외식품인증비를 신규로 지원해 경영안전성을 높여 수출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임업통상팀은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사업과 수출 보험료 및 해외식품 인증비 지원, 경영안전성 강화대책 수립 등을 맡게 된다.

EU, 미국, 호주, 중국 등 시장에 목재나 목재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불법벌채 목재 유통금지 제도에 대비할 예정이다.

자료 : 산림청

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2015.01.29

기획재정부는 중국 경제 수석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지난 1월 29일 제13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했다. 여기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한반도와 아시아, 유럽을 철도 등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동 연구해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국가간 상이한 통화 정책, 석유 등 원자재가격 불안정,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역내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한-중 FTA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양국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한-중 FTA 가서명, 올 상반기 중 정식서명 추진

2015.02.25

한국과 중국이 지난 2월 25일 양국간 FTA의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짓고, 협상 내용에 대해 최종 확인 후 가서명했다. 협상 내용은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정식서명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 된다.

*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 뉴스



한-중 FTA는 협정에 따라 일정한 과도기를 거친 후 양국 상품 세금종목의 90%와 무역액의 85%에 대해 자유화를 실현하게 되고, 양허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무관세 정책을 적용하게 된다.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국측의 관세철폐를 확보해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 실질타결 선언 이후, FTA 절차상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 내용을 담고 있는 양허표를 공개하지 못해 한-중 FTA로 인한 실익이 많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서명을 계기로 모든 품목에 대한 양허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한-중 FTA로 인한 실제적인 이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업종별 영향은 가전(한국산 프리미엄 제품의 중국 현지 판매 증가), 섬유(값 싼 중국산 제품으로 한국산 저가 제품 피해) 등이다.

■ 한-중 FTA,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업종	내용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프리미엄 제품 중국 현지 판매 증가 기대 일부 소형가전업체, 중국산 가전에 따른 피해 우려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값 싼 중국산 섬유제품에 한국산의 저가 제품 피해 불가피
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틸렌 등 범용 제품만 관세 철폐로 효과 미미 PX, PTA 등 주력 수출품의 양허 제외
엔터테인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기업 49% 지분 참여 허용으로 한류 수출 활성화 기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허 제외, 중국산 수입차에 따른 피해를 막음 자동차 부품 민감품목으로 포함되어 현재 관세인하 효과는 없음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제품 관세 철폐, 대다수는 무관세라 관세인하 효과 미미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한 한국산 제품 피해 우려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FTA 사상 최초 독립채터 협정 체결(중국 진출 발판 마련됨) 양국 투자 개방 합의 없어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어려움
항공·해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 간 승객 왕래 및 수송 물동량 증가 기대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수출 화장품 관세 최대 10% 철폐로 가격경쟁력 강화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정식서명 실시**
2015.02.27

한국과 터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이 정식 서명됐다. 한-터키 FTA는 지난 2013년 기본협정과 상품협정이 먼저 발효됐으며 지난해 7월 서비스·투자 협정이 추가로 타결됐다. 이어 지난해 9월 가서명 이후 이날 정식 서명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기본·상품협정에 국한됐던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한 단계 격상됐다. 터키가 FTA에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터키에 진출한 우리나라 서비스 공급자와 투자자가 다른 나라에 앞서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협정이 발효되면 10년간 국내총생산(GDP) 0.01%, 소비자 후생 수준 6,000만달러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우리 기업이 조속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통상정책 중심은
한-중 FTA 통상산업포럼
개최**
2015.03.18

산업부는 지난 3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올해 정부 통상정책의 중점은 농수산물 등 취약 분야 보호와 우리 기업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 FTA 우선 추진이다.

통상산업포럼에서 산업부는 농수산물 등 취약 분야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 기업의 공세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 FTA 우선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또 TPP* 참여문제는 예비양자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울러 중점 추진 중인 비관세장벽 대응정책을 설명하고 일부 개선 사례도 소개하며 업계와 적극 협업을 당부했다. TPP의 산업별 영향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청년층 뉴질랜드 진출 확대

2015.0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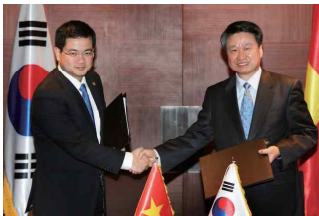
한국과 뉴질랜드가 지난 3월 23일 작년 11월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한국이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 완료했다.

뉴질랜드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32억 6천만 달러로, 우리나라는 주로 승용차와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뉴질랜드는 원자재와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갖고 있다.

앞서 한국과 뉴질랜드는 2009년 6월 협상 개시 후 7차례 공식·비공식 협상을 가졌지만 민감품목 양허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2013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에 합의했고, 2014년 11월 호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실질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

한-베트남 FTA 가서명 완료, 연내 발효 목표

2015.03.30



작년 말 협상을 타결지은 한-베트남 FTA에 대한 가서명이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 절차를 매듭짓고 조속한 국회 비준을 받기로 해 연내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부품과 섬유 등의 시장이 열려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한-베트남FTA에서 양국은 기존에 체결한 한-아세안FTA에 이어 추가로 시장을 개방한다. 베트남은 발효 후 3년 내에 섬유, 5년 내에 변압기와 전동기 등의 관세를 없앤다. 의약품과 철도차량부품은 7년, 자동차부품과 승용차·화장품·전기밥솥·에어컨은 10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우리나라는 3년 내에 건전지와 석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5년 내에 선박용 부품과 냉동 고구마·냉동 가오리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또한, 이번 FTA에서 쌀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 양파, 녹차, 오징어 등 민간 농수산물에는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열대 과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 내 철폐, 천연 꿀과 고구마전분 등은 15년 내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 추진**
2015.04.01

정부는 지난 4월 1일 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FTA 추진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중미는 SIECA(중미경제통합기구)에 소속된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의미한다. 이들 6개국은 경제적 공동체인 SIECA(중미경제통합기구)를 결성하는 등 경제적 통합 수준이 높은 상황이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및 한-에콰도르 무역협정의 추진 필요성과 추진 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FTA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03 해외 FTA 동향

**중국 자유무역체제
새로운 도약**
2015.02.12

중국은 최근 2년간 빠르게 자유무역협력 관계를 맺고있다. 특히 한국과의 FTA, 중국-홍콩의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은 중국을 더욱 빠르게 발전시킬 것이다.

한-중 FTA 연구는 2004년을 시작으로 한-중 FTA에 대하여 다년간의 산·관·학 연구를 시작하였고, 마침내 2014년 11월 실질적 협상을 이뤄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유사한 제조 분야에서부터 농업부문 개방에 대한 민감도 높은 산업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다.

이번 FTA에서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 수입액의 91%를 철폐한다.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와 지역협력,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각종 정책, 환경 등 풀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동북아지역통합을 달성하려는 중국은 금번 한-중 FTA 협상이 향후 한·중·일 FTA 추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FTA 네트워크 형성, 아시아태평양의 지역역할을 이뤄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협상으로 여기고 있다.

자료 : <http://www.js.xinhuanet.com>

**RCEP 7차 협상 종료,
'무역자유화' 등 의견 차로
타결 난항**
2015.02.13

아시아 주요 국가가 가입한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교섭을 위한 제7차 회의가 지난 2월 13일,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종료됐다.

그러나 양허 품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무역자유화율' 목표 등 협상의 전제가 되는 큰 틀에서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으며, RCEP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이토 나오키 심의관은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하고 있는 16개 국의 상황이 각기 달라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6월에는 교토(京都)에서 교섭 회의를 열 예정이다.

자료 : KOTRA 글로벌원도우

**한-중 FTA 이후 향후
20년내 품목수 91%,
수입액 85%
관세 철폐 예상**
2015.02.26

보도에 따르면, 2월 25일 협상을 타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가서명이 완료됐다. 이번 가서명한 FTA 협정문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0년 내 품목 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 한국은 품목 수의 92%, 수입액의 91%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20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세탁기,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의류기기 가전제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전동기, 변압기 등 전동기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으며, 골프채 등 수입액이 많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15~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자료 : <http://news.163.com>(중국 무역신문)

EU-일본 FTA 협상

급물살

2015.03.02

유럽연합(EU)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EU와 일본은 지난 2월 27일 제9차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관세, TBT, 공공조달, 서비스 무역, 투자 규범, SPS, 규범 협력 및 투명성 등 협정에 포함될 대부분의 분야를 다루었다.

EU는 농산물 등 식품 시장 개방을 통해 유럽 국가들의 대(對) 일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의 식품 규제 완화를 통해 유럽산 육류 및 유제품 수출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EU와 일본은 2013년 3월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 브뤼셀과 도쿄를 오가며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전 세계 교역의 40%에 달하는 EU와 일본 양측의 FTA가 성사되면 상호 교역 증대와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EU는 일본과 FTA 체결로 EU 국내총생산(GDP)이 0.6~0.8% 증가하고 일자리 40만 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U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33%, 일본의 EU 수출은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이투데이

뉴질랜드, 중국과 FTA 확대 논의

2015.03.05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지난 3월 양국간 FTA 효력 확대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그로서는 이번 방문이 중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에서 잠재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다루는 첫 예비 논의라고 말하였다.

중국과 뉴질랜드의 세관당국은 최근 FTA하에 양국 간 무역 원활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협의하였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8년 양국 간 FTA 타결 이후로 두 배의 수출 증가 효과를 보고 있다.

뉴질랜드의 2014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금액은 20%에 가까우며, 중국은 뉴질랜드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

자료 : KOTRA 글로벌원도우



멕시코, 파나마와의 FTA 비준 논의 중 2015.03.05

멕시코-파나마 FTA 비준에 참여하는 멕시코 상원의원들은 파나마와의 FTA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멕시코-파나마 FTA는 2014년 4월 3일에 공식서명 되었으며, 멕시코에서 파나마로의 수출이 최근 10년간 세 배로 늘었다.

멕시코의 상원의원은 FTA가 멕시코의 對파나마 수출품목을 다양화 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파나마는 서비스 중심 경제이고 멕시코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앞으로 멕시코-파나마 FTA는 파나마가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정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자료 : KOTRA 글로벌원도우

중국 위해서 “한국상품 집산지로 부상” 2015.03.25

한-중 FTA의 성공적인 체결로 한국 상품의 對중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위해서가 가장 큰 특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위해서에는 이미 한국기업이 1,500개 이상 진출해 있고 교통, 인프라 등이 잘 구축되어 있다. 위해서는 한-중 FTA중 중국의 최초 협력도시로서 90%이상의 한국 상품의 무관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 상품의 중국진출 교두보로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위해서는 올해 한국 중소기업들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 교역센터’를 곧 오픈할 예정이다.

‘한-중 교역센터’는 위해서 정부와 중국 조선족기업의 합작회사로 위해서 경제개발구 내에 총 면적 1만 3,800제곱미터이다. 동 센터에서는 해관, 공상, 세무,公安 등 정부기관이 상주하여 한국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물류 통관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 외 회계, 변호사, 통역, 직원채용, 출입국 수송 등 서비스도 일괄 제공할 것이다.

한-중 교역센터는 동시에 중국 내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고, 입주기업에 한 해 3년 동안 무상 임대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중국시장 분석, 영업기획, 제품홍보기획 등 전문가를 통한 기업 맞춤형 B2B, B2C 마케팅 컨설팅도 지원할 것이다.

이 밖에도 365일 무료 보세창고 운영, 24시간 내 당일 통관 시스템을 가동하고
결재조회 서비스 등도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위해서는 한국 → 위해 →
중국본토로 통하는 물류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 : <http://hijxinwen.dbw.cn>

**중국, 호주와 연내
FTA 체결 추진**
2015.03.3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피터 코스그로브 호주 총독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이 연내 FTA 서명과 비준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효시기를 가급적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은 FTA 체결이 양국간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라면서 상호호혜의 기초위에 중국 서부대개발과 호주 북부대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자원 개발, 농축산업, 인프라건설, 생태환경보호 등
영역에서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양국 총리 간 정기 회동과 정부부문, 입법기구, 정당교류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자고 요청했다.

자료 : 연합뉴스

**파나마,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2015.04.02

파나마와 이스라엘 정부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지난해 5월
제1차 협상을 가진 데 이어 올해 3월 제2차 협상을 추진하였다.

파나마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발달된 기술력을 파나마의 농업분야 등에 도입하고 활용함으로써
파나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파나마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이스라엘 제품의
파나마 및 중남미시장 진출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위생검역규정, 무역보호, 서비스, 투자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자료 : KOTRA 글로벌원도우

